지역 소식통

정읍, '로컬 청년창업 지원' 참여자 모집 5월 10일까지

정읍시가 역량 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지역 자립기반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10일까지 '2024년 정읍시 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선발규모는 10명으로 공고일 기준 정읍에 거주하고, 18~45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정읍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또는 1년 이내 초기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다.

'정읍시 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시가 2022년부터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잠재력 있는 지역 청년 창업가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해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가는 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에 참여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간 최대 총 1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마실축제, '황금 동종을 선물합니다' 특별 이벤트 진행

부안군 대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문)는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부안 해뜰마루에서 개최되는 제11회 부안마실축제에서 '황금 동종을 선물합니다' 특별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부안군 국보 제1호로 승격된 내소사 동종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로 약 1000만원 상당의 황금 동종 2개를 제작해 부안군 관내 1명, 관외 1명 총 2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순금 동종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행사다.

응모방법은 축제기간 중 부안군 소재 식당·숙박업소와 축제장 내 부스에서 3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에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 관내·외로 구분된 응모함에 본인의 주소지에 맞게 응모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새만금개발청 '맞손'

간척문화 보존, 영화·영상 등 관광자원 활성화 업무협약

부안군과 새만금개발청은 22일 부안군 계화 제2방조제 일원에서 간척문화 보존과 영화·영상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척문화 보존과 영화·영상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 진행됐다.

부안군과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새만금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간척유산을 관광 자원화하고 영상·영화 촬영 로케이션 제공 등 새만금과 부안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협력을 함께 할 예정이다.

특히 다시 찾는 부안-새만금 관광지로서 계화 제2방조제와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간척문화 관광 자원화 및 새만금이 관광 콘텐츠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광화 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은 부안 인근의 간척 역사를 살린 관광요소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과거와 현재·미래를 잇는 사업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부안 인근 관광지와 함께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새만금 인근지역을 포함한 메가시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우리나라 농업 생산량 증대와 현재의 새만금 간척사업에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한 상징적 시설물인 계화 제2방조제에서 협약식을 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부안과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만금과 부안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 장소인 계화 제2방조제는 1963년 시작된 동진강 하구의 대규모 간척 공사 후 작은 섬이었던 계화도를 육지와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당시 광복 이후 최대 간척지로 조성된 경지에서 연간 1만 1000톤의 쌀 증산 효과를 가져오면서 풍요롭고 근대화된 농촌을 구현하는 시작점이 된 역사적인 장소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난 22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척문화 보존과 영화·영상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및 이탈 방지 교육 강화하라"

이학수 정읍시장, 영상간부회의서

이학수 시장은 22일 영상 간부회의를 갖고 "영농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이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 등 고용주의 갑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터미널, 역사, 공동주택 등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 대상지에 대해 설치 여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며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위급상황 대응능력을 키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시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사업 발굴 시 사업 내용 뿐만 아니라 집행 시기 등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라"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임산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정읍시가 정읍의 청정 임산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임산물체험단지 차향문화관은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이상 단체나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사전접수를 받아 운영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체험에 따라 8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다.

체험은 참여자가 직접 재료를 다듬고 채색해 본인만의 작품이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전사컵 드로잉 △우드버닝 △모루 인형 만들기 등 다채롭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회당 최대 25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체험에 따라 40분에서 80분 정도다. △버섯피자 △호두초코쿠키 △힙팟(HipPot) 만들기와 같은 사전 예약 프로그램은 최소 7일 전 예약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난 20일 열린 청보리밭 축제 개막식 참석차 서울 성북·관악구, 부산 동래구와 일본 시만토정이 고창을 방문해 축제 성공을 응원했다. 사진은 청보리밭 축제 개막식.

고창군,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국내·외 자매도시 4곳, '제21회 고창청보리밭축제' 축하 방문

고창군의 자매도시 4곳이 청보리밭 축제에 방문단을 파견하며 축제 성공을 응원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청보리밭 축제 개막식 참석차 서울 성북·관악구, 부산 동래구와 일본 시만토정이 고창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고창군민들의 환대를 받으며 기념식과 보리밭 사잇길 걷기 등을 함께했다.

특히 해외 우호도시인 일본 시만토정에서는 미모토 카즈요시 의장을 포함한 10명의 방문단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키웠다.

일본 시만토정 방문단은 지난 3월 23일 시만토강 사쿠라 마라톤대회 방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번 고창방문을 추진했다. 판소리 체험 등 군이 보유한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 견학하고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상호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자매도시의 방문단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고창군과 자매도시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 높이고 관광·경제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촌인력적정인건비 조례는 지역농업인 보호조치"

심덕섭 고창군수, 간부회의서 고창군 안정적 인건비 운영 강조

심덕섭 고창군수가 22일 간부회의에서 "고창군 농촌인력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인 농촌인력 부족 상황에서 지역 농촌과 땀 흘려 농사짓는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4월 '농업근로자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상생 결의 다짐 행사'를 열어 농촌지역내 인건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당시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농협조합장, 농업인단체장, 이장단협의회장, 일자리협회 고창군지부 등이 참여했다.

이어 2023년 8월1일에는 전국최초로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에 있다.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9월에는 적정 인건비로 남자 하한 11만원~상한 13만원, 여자 9~11만원을 제시했다.

심 군수는 "조례는 폭등하는 인건비에 한숨 쉬는 지역 농가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 행정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의무나 강제사항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9개월 차를 맞는 현재 고창군의 인건비는 남자 13~14만원, 여자 11~12만원선으로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 군수는 불법체류자들과 이들과 담합해 인건비를 올리는 브로커 세력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심 군수는 "숭고한 농업현장을 어지럽히는 세력이 지역에 발 못 붙이도록 농업인, 직업소개소, 행정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당하고 타당한 조례를 적극 홍보하면서 농업인 및 근로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풍요로운 농촌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